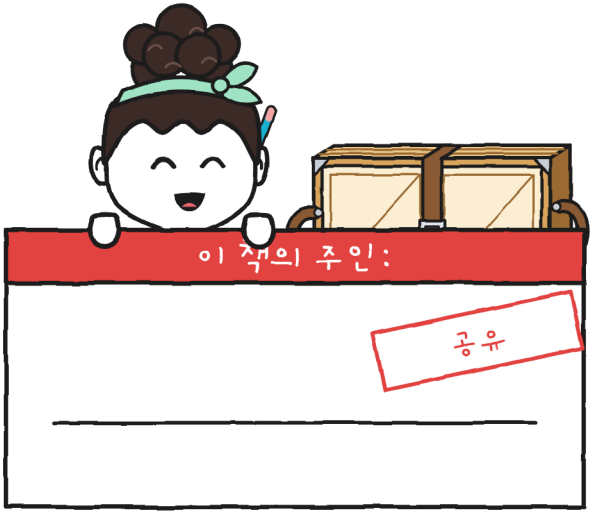


공유. 다 들어가. —J.

이걸 주웠다면 접어서 돌려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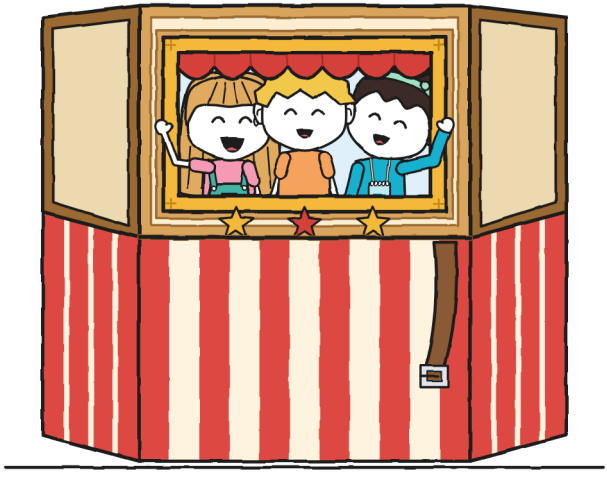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진짜 용은 없고, 택배는 날아서 돌아오지 않아. 진짜로 옮길 때는 마지막 쪽을 봐. —J.

불가능 배달 · 6

자리 하나, 우리 셋

LinguAula



(구내의 공책)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불가능 배달 · 6
자리 하나, 우리 셋

시리즈 여섯 번째 책. 앞선 책: '이 택배는 문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반송해 주세요', '여기선 안 돼, 부스러기!', '케이크 하나, 우리 둘'

글과 그림: LinguAula

한국어판: LinguAula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초판: 2026

© 2026 LinguAula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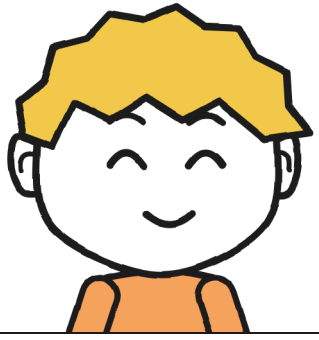
글꼴: Gowun Dodum, Gaegu, Nanum Pen Script, Nanum Gothic Coding, Andika, Patrick Hand, Caveat, Courier Prime (SIL OFL 라이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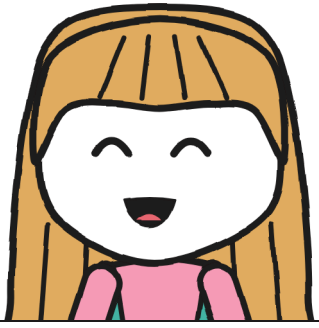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셋이서 든다. 손잡이는 골랐어. —J.

등장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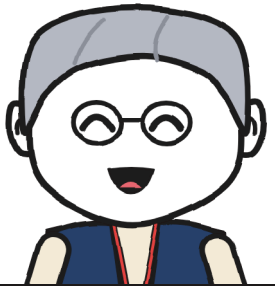
구니. 센티미터로 잰다. 이번 주에는 다른 것도 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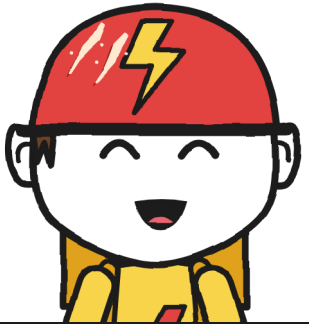
훌리타. 길을 안다. 그걸 설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노아. 훌리타의 오랜 친구. 걸음으로 잰다. 걸음을 늘 신고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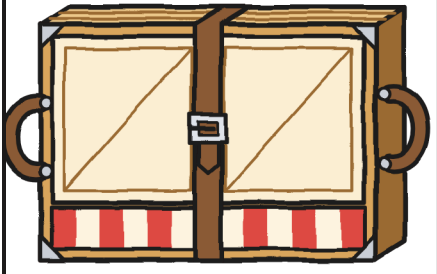
이레네. 연극 공방을 맡고 있다. 어디로 가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멈춰'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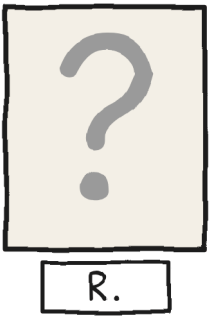
토쇼. 번개배송, 그리고 가게. 시간을 재고 의견은 없다. 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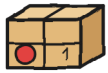
마라. 택배를 빌려준다. 상자는 놓지 않는다.



6번 택배. 상자에 들어가는 극장. 벨트를 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펼쳐진다.



R. 보내는 사람. 이번에는 물품 목록에 한 줄을 남겼다.



제1장

왜 셋이 필요할까?

5권은 눈금판 위의 바늘 두 개로 끝났다. 나는 그걸 그대로 덮었다. 어느 바늘에게도 비켜 달라고 하지 않았다. 다 쓴 공책은 놔둔 그대로 남는다. 그게 좋은 점이다. 이제 아무도 따질 수 없으니까.

6권은 주황색이다. 서두르지만 않으면 한 번에 껍질이 벗겨지는 귤 같은 주황색이고, 한쪽 모서리에는 가게 도장도 찍혀 있다. 마라 아줌마는 공책을 계산대 위, 분홍색 공책 옆에 놓아두고는 이미 정리된 상자들을 정리하러 안쪽 창고로 들어갔다. 마라 아줌마는 공책을 건네주지 않는다. 네가 볼 자리에 놓아둘 뿐이다.

첫 쪽에는 나만의 전통이 있다. 2권에는 공식, 3권에는 기밀, 4권에는 최종, 5권에는 조용히를 썼다. 자물쇠가 달린 말 네 개. 네 개 다 나보다 훌리타가 먼저 읽었다. 이번에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말을 찾았다.

맨 위에는 배달 공책 6 · 주인: 구니라고 적었다. 원래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 밑에는 단어를 딱 하나 썼다.

공유.

그리고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 혹시 무엇을 몰라서인지는 나도 몰랐다. 곧 알게 됐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훌리타는 계산대 건너편에 있었다. 공책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로 끌어당기더니 초록색 매직펜 뚜껑을 열고 그 반 쪽에 글씨를 썼다. 글씨가 너무 커서 여백까지 나갔고, 잠깐 생각하더니 여백으로 계속 이어 썼다. 그러고는 "내가 안 그랬어" 하는 얼굴로 뚜껑을 닫았다. 그 가게에서는 이제 모두가 가진 얼굴이다.

나는 첫 쪽을 내 글씨로 공유했어. —J.

차지한 크기를 재 보았다. 아래쪽 반이 통째로였다. 내 단어는 주위에 남겨 둔 공기까지 포함해서 위쪽 반을 차지했다. 두 반쪽. 아주 합리적인 나눔 같았다.



이 공책을 처음 읽는 사람을 위해 늘 하던 설명을 한다. 가게 이름은 불가능 배달이고 주인은 마라 아줌마다. 마라 아줌마는 마녀이고 보라색 모자를 쓰며, 찍을 때마다 꺼진 초 냄새가 나는 불꽃이 튀는 도장을 갖고 있다. 왼쪽 선반에는 반송된 택배가 있다. 아무도 전하지 못한 택배들이고 보낸 사람은 전부 R.이다. 받은 사람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라벨에 서명하지 않으면, 택배는 동틀 무렵 날아서 자기 선반으로 돌아간다. 처음엔 스무 개였다. 훌리타와 나는 다섯 개를 전했다. 용 알, 다리 달린 씨앗, 작은 종, 도착 팀 하나, 그리고 엘리아 아줌마 빵집의 받침대. 벽에는 초록색 글씨로 남은 택배 15라고 적혀 있다. 번개배송의 토뇨는 의자 옆에 엎어 둔 상자를 자기 자리로 쓴다. 아직은.

월요일, 엘리아 아줌마의 쪽지가 있던 다음 날, 나는 학교가 끝나고 곧장 가게로 갔다. 훌리타가 봉투를 들고 계산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아는 봉투 색인 초록색도 파란색도 아니었다. 청록색이었고, 닫혀 있었다. 훌리타는 그걸 두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잡고 있었다. 뜨겁기라도 한 것처럼.

"집배원 아저씨가 가져왔어. '불가능 배달 가게 앞'이라고 쓰여 있어. 안 열고 있은 지 좀 됐어."

"얼마나?"

"28분." 토뇨가 자기 상자에서 시계를 보며 말했다. "동네 신기록이야."

토뇨는 가게 안에서도 헬멧을 쓰고 있었다. 번개 같은 두 줄 발톱 무늬가 있는 헬멧이다. 시계는 소매를 걷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소매 밖으로 차고 있었다.

나는 훌리타를 안다. 훌리타 손에 있는 닫힌 봉투는 훌리타가 덮개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만 닫혀 있다. 28분은 참을성이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였는데, 그게 뭔지 나는 몰랐다.

내 꺼 아니었어. 내 꺼 아닌 봉투는 세 배 무거워. —J.

마라 아줌마는 손톱 하나로 봉투를 열었다. 종이는 필요한 만큼만 찢었다. 편지는 또박또박한 어른의 글씨였다. 줄 끝에서 휘어지지 않는 글씨.

"저는 주민센터 연극 공방을 맡고 있는 이레네입니다. 물품 목록을 정리하다가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접이식 미니 극장: 미수령'. 혹시 그쪽에 있나요? 31일 토요일은 동네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접힌 미니 극장이 저희 마당에 도착하고, 세 사람으로 된 한 팀이 옮겨 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노아 팀에는 셋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아직은 노아 혼자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다른 글씨로, 작고 곧게, 청록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훌리타: 나야! 나 이제 연극 해. 택배 잘 아는 누군가를 데려와. — 노아"

훌리타는 서명을 읽더니 입꼭지가 한쪽만 올라갔다. 말하지 않기로 한 일이 생각날 때 짓는 표정처럼. 훌리타는 "노아"라고 작게 말했다. 천 번쯤 지나다닌 길 이름을 말하듯이.

'택배 잘 아는 누군가'. 그게 나였다. '택배'는 마음에 들었다. '누군가'는 덜.



5시에 두 사람이 왔다.

이레네는 서류철을 들고, 주머니가 가득한 감색 조끼를 입고, 목에 호루라기를 걸고 있었다. 머리는 짧은 회색이었고 동그란 안경을 썼다. 그 안경으로 시키지도 않은 물품 조사를 하듯 가게를 선반마다 훑었다. 노아는 끈에 매단 수첩을 목에 걸고, 청록색 연필을 귀 뒤에 꽂고 있었다. 머리는 곱슬곱슬한 높은 올림머리에 민트색 스카프를 묶었고, 스웨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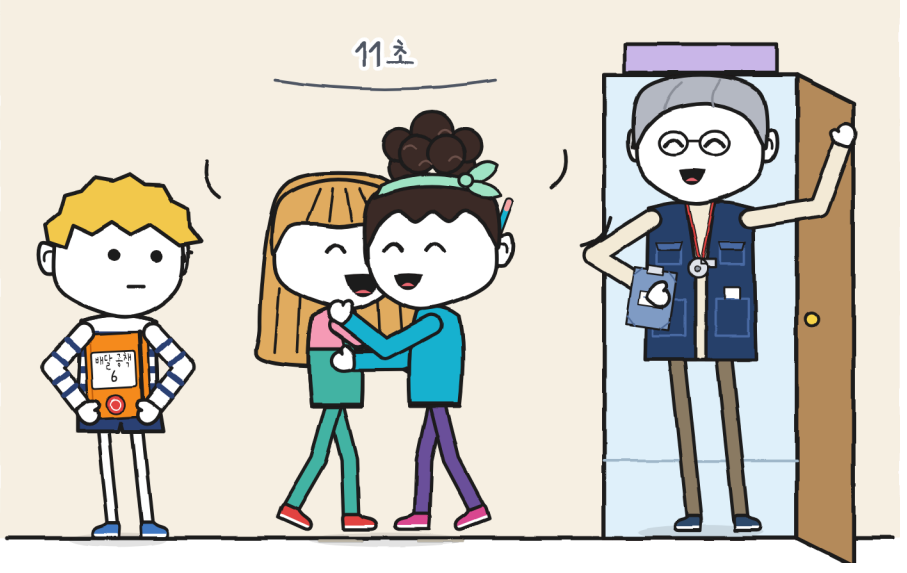
봉투처럼 청록색이었다. 노아는 모든 게 찾을 필요 없게 제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 같았다.

훌리타는 문을 열지 않고 계산대 밑으로 빠져나와서 둘이 껴안았다. 한참 껴안고 있어서 나는 시간을 잴 수 있었다. 11초. 나는 공책을 들고 한쪽에 서 있었다. 공책은 이럴 때도 쓸모가 있다. 손에 들 게 생기니까.

"얘는 구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택배를 잘 알아."

"안녕, 택배 잘 아는 구니." 노아가 말했다. 그러고는 수첩에 내 이름을 적었다.

방금 붙여 준 별명까지 통째로 적었다. 서 있던 자리에서 보니 나는 그 쪽의 두 번째 줄이었다. 첫 줄에는 '훌리타'라고 쓰여 있었고, 밑에는 이미 끝난 일처럼 줄이 그어져 있었다.



마라 아줌마는 파란 의자에 올라가 선반에서 6번 택배를 내렸다. 다른 것과 똑같은 상자였다. 더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라벨에는 타자로 친 다섯 줄이 있었다. 6번. 마당 공방. 두 문으로 입장. 접은 채로 배달할 것. 그리고 늘 그렇듯 아래에 보내는 사람: R. 그 둘레로 반송 도장이 아홉 개 찍혀 있었다.

"도장이 아홉 개." 훌리타가 말했다.

"'두 문으로 입장'이래." 노아가 읽었다. "무슨 두 문이지?"

이레네는 몰랐다. 마라 아줌마도 몰랐다. 나는 물음표를 붙여 적어 두었다. 뭔가를 모르는데 알아챘다는 건 남겨 두고 싶을 때 내가 하는 일이다.

"아홉 번 갖다줬어요."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월요일에는 바느질 모임이, 수요일에는 합창단이, 금요일에는 체스 모임이 문을 열었죠. '공방이요? 여기 아니에요.' 공방 이름으로 서명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마라 아줌마가 말하는 동안 나는 세 칸 만화로 그렸다. 같은 문 앞에서 상자를 옆구리에 낀 마라 아줌마. 문에서는 차례로 바늘과 실, 음표, 체스 말이 나왔다. 체스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체스에서는 조용히 있으니까. 그 밑에는 새벽에 가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상자. 아홉 번.

"연극은 마당에서 연습해요." 이레네가 말했다. "그리고 마당에는 초인종이 없고요."

이레네는 서류철을 열어 마라 아줌마에게 주민센터 도장이 찍힌 종이를 보여 주었다. 마라 아줌마는 코를 바싹 대고 읽었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인 걸 읽을 때 하는 방식이다.

"이제 기록부에 올라 있어요. '연극 공방. 담당: 이레네.' 공방 이름으로 서명해 줄 사람이 이제 있어요."

"이제 서명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마라 아줌마가 엘리아 아줌마 받침대 때처럼 상자에 담아 가져다주면 안 돼요?" 훌리타가 물었다.

"상자에 담아 아홉 번 가져갔지. 이제는 조건을 받는 사람이 정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접이식 미니 극장은 광장에 들고 다니려고 있는 거예요." 이레네가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길에서 이걸 들 수 있는지 봐야 해요. 못 들면 저한테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건 서명 안 해요."

"그 말은 빵집에서 들어 본 적이 있어요."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나는 편지를 읽은 뒤로 질문이 하나 있었고, 닳아 없어지기 전에 물어봤다.

"그런데 왜 셋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물었다. 손잡이가 둘 달린 꾸러미. 사람 둘, 손잡이마다 한 명. 손가락으로 세어 봤는데 둘이 나왔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이레네는 안경 너머로 나를 보았다. 생각보다 잘 맞는 부품을 볼 때처럼.

"좋은 질문이야. 화요일에 마당에서 너희가 답해 줘."

마라 아줌마는 책을 펴고 자기 조건을 적었다. 마라 아줌마의 조건은 늘 한 손에 들어온다. 내 손으로 세어 보니 엄지가 남았다.

- 6번: 연습용으로 빌려줌.
- 이레네나 나와 함께 나감.
- 접어서 돌아옴.
- 여기서 잠.

라벨은 상자에 그대로 두고, 상자는 마라 아줌마가 맡는다.

선반에서 자면, 해 뜰 때 돌아갈 곳이 없어. 아직 도장 아홉 개 그대로야. 내가 물어봤어.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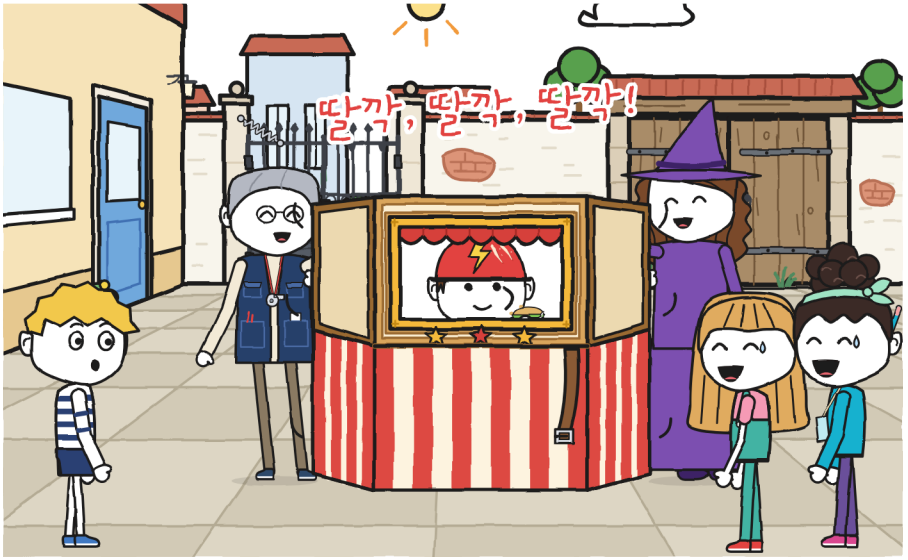
화요일에 우리는 주민센터 마당에 갔다. 인도에서 들어가는 곳에 페인트를 여러 겹 칠한 쇠 철문이 있고, 저절로 닫힌다. 놓으면 천천히 돌아와서 딸깍 소리가 난다. 시키지 않았는데 앉는 개처럼.

마라 아줌마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미니 극장은 밖으로 나오며 쑥 커졌다. 엘리아 아줌마의 받침대 때처럼. 나는 이제 놀라지 않는다. 줄자를 꺼낸다.

접은 상태는 나무판과 천으로 된 평평한 꾸러미였고, 양옆에 손잡이가 하나씩, 구멍이 셋인 버클을 지나는 벨트가 있었다. 1 m에 70 cm, 옆으로 세우면 1뼘. 철문은 문짝을 열면 90 cm. 옆으로 세우면 철문으로 들어갔다. 그건 쉬운 부분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이레네는 빠진 곳 없이 온전한지 보고 싶어 했다. 벨트를 풀고 꾸러미를 돌렸다. 판들이 무게 때문에 저절로 펼쳐졌다.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딸깍, 딸깍, 딸깍. 벽이 세 면인 무대, 짧은 막, 그리고 뒤쪽 판에 틀이 달린 창이 하나 있었다.

창으로 샌드위치를 들고 인도를 지나가는 토뇨가 보였다. 입에 음식이 가득해서 인사를 못 했다. 잠깐 멈춰 서서 틀에 둘러싸인 채, 헬멧을 쓰고 한쪽 볼이 다른 쪽보다 더 부풀어서, 점심시간에 그려진 중요한 사람의 초상화 같았다.



"온전하네." 이레네가 말했다. "공방 규칙이야. 손은 손잡이에. 경첩에는 절대 안 돼. 그리고 회전할 때는 누군가 벨트를 잡아."

나는 그대로 적었다.

이레네와 마라 아줌마가 미니 극장을 접고 벨트를 채웠다.

"저희가 해 볼게요." 훌리타가 말했다. 노아는 벌써 다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둘은 서로 쳐다보며 정하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늘 앉던 의자로 가듯이, 각자 자기 쪽으로 갔다.

둘은 셋까지 세고 들어 올렸다. 들 수 있었다. 팔꿈치를 조금 벌린 채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미니 극장은 잘 든 쟁반처럼 흔들리지 않고 둘 사이에서 따라왔다. 철문에 도착했다. 철문은 닫혀 있었다.

훌리타가 철문을 쳐다보았다. 노아도 쳐다보았다. 손은 네 개였는데 네 개 다 차 있었다.

나는 2미터 떨어진 곳에서, 비어 있는 두 손과 공책 하나를 들고 있었다.

저 안쪽의 이레네는 서류철을 가슴에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와줘'도, '너'도.

나는 등으로 철문을 붙잡았다. 둘이 지나갔다. 이레네가 서류철에 뭔가를 적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이 공책의 장치를 발명했다. 내 경력에서 다섯 번째 장치이고, 떨림계, 빨강계, 여기계, 소음계 다음이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재는 첫 장치다. 이름은 셋 측정기, '구간마다 누가 무엇을 맡는지'. 구간마다 한 줄, 칸은 셋, 칸마다 작은 그림이 있다.

- 들기: 두 손으로 손잡이 둘.
- 안내: 어디로, 언제 가는지 말하기.
- 길 열기: 문, 턱, 사람.

첫 줄 '마당, 첫 번째 시도'에는 '훌리타와 노아', '훌리타와 노아', 그리고 빈 칸 하나를 적었다. 둘째 줄 '마당, 두 번째 시도'도 똑같은데 셋째 칸에는 '구니'라고 적었다.

이름 두 개가 겹치고 칸 하나가 비어 있으면 통과할 수 없다. 칸이 다 차 있으면 통과한다. 이레네에게 줄 답이 생겼고, 그 답은 내 것이었다.

그리고 더 작은 것을 하나 더 적었다. '철문은 돌멩이도 붙잡아 준다'.

연필에 힘을 거의 주지 않고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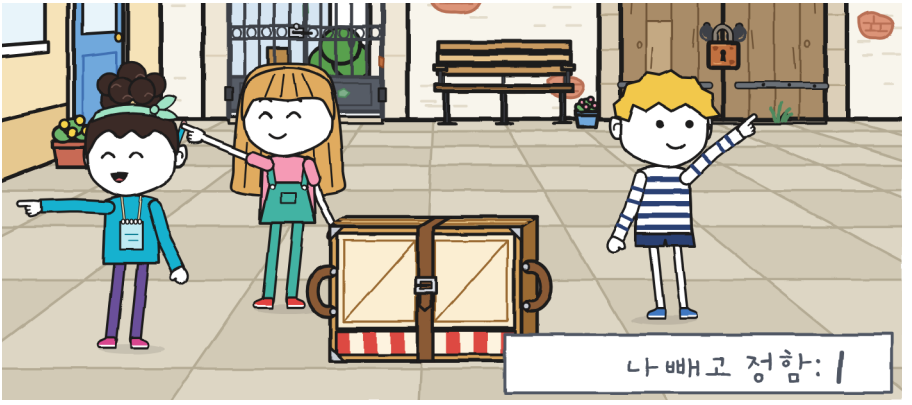
라벨을 이해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두 문은 철문의 문짝 두 개야." 훌리타가 말했다.

"둘 다 열어야 해." 노아가 말했다.

"먼저 담장 바깥쪽부터 재 볼 수도 있어." 내가 말했다.

우리 셋은 동시에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훌리타는 철문을. 노아는 공방 연습실을. 나는 길을.



“나중에.” 둘이 말했다.

둘이 동시에, 같은 가락으로 말했다. 미리 연습한 것처럼. 연습했겠지. 몇 년 동안.

나 혼자 갔다. 철문으로 나가자 뒤에서 딸깍 소리와 함께 닫혔다. 줄자로 구간마다 재면서 담장을 한 바퀴 돌았고, 나온 숫자는 무릎에 공책을 받치고 하나하나 적었다. 담장은 길었고, 고인 물 냄새가 나는 골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모퉁이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머릿속에 그것을 담은 채 서둘러 돌아왔다. 줄자는 아직 감지 못해서 노란색 1미터가 인도에 끌렸다. 들어가 보니 훌리타와 노아는 내가 이 동네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두고 웃고 있었다. 소리 없이 어깨로 웃었고, 노아는 그만하라며 훌리타의 팔을 건드렸지만 훌리타는 그치지 않았다.

나는 입을 열었다.

“이미 정해졌어, 구니.” 훌리타가 말했다. “문짝 두 개야.”

그 쪽 아래 구석에 작게 연필로 적었다. 나 빼고 정함. 그 옆에 작대기 하나. 입이 아직 열린 채 적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공책도 덮었다.

그 작대기는 이틀 뒤에 봤어. 내 거였어. —J.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이 책에는 여섯 가지 사이즈가 있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같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쪽마다 들려주는데, 갈수록 이야기가 더 섬세해진다. XL은 소설이다. 같은 이야기에, 구니가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담을 자리가 있다.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XXS, pre-A1 · XS, A1 · S, A2 · M, B1 · L, B2 · XL, B2–C1.

각자 자기 사이즈로. 미니 극장은 같아.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L 사이즈의 활동 포함)